

한국전쟁기 육군중군작가단의 작품 활동

신영덕
(공군사관학교)

1. 서론

한국전쟁은 민족공동체의 삶의 구조와 질을 변화시킨 전쟁으로서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의 제도와 문화의 현 실태를 배태한 역사적 계기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느끼게 한다(한완상, 박명규 1992, 5). 그런데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는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50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 특히 사실 확인의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 한국전쟁기에 발표된 육군중군작가단의 작품에 관해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육군중군작가단의 조직 및 활동 내용은 타군과 비교할 때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다. 왜냐하면 우선 육군중군작가단의 기관지 『전선문학』이 7호나 발행되어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어 그 활동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자료 역시 타군에 비해 비교적 풍부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육군중군작가단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이들의 문학 작품 전반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그 일환으로서 한국전쟁기에 발표된 육군중군작가단의 전쟁시와 전쟁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그 특성 및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주요어] 한국전쟁, 육군/해군/공군 작가단, 전쟁 시/소설, 전쟁독려/선전, 애국심, 전쟁 비판, 공산주의, 전시현실, 비인간성, 이데올로기

2. 전쟁시 창작과 그 특성

한국전쟁기 시인들은 종군 활동을 하면서도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쟁 하에서 창작 활동을 계속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있을지 모른다. 더욱이 이들의 전쟁시는 한국전쟁기 시의 특수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시의 원형으로서 이후의 한국 현대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국전쟁기 육군 종군 시인들의 전쟁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애국심 및 전의 고취를 위해 전쟁을 독려하고 있는 전쟁독려시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보여주고 있는 전쟁비판시이다. 전자의 작품들이 선전선동의 목적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후자의 작품들은 대부분 전쟁경험의 시적 형상화를 통해 전쟁의 비인간적 성격을 비판하고 있다.

전쟁독려시가 전쟁을 독려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세계 문학사의 공통된 특성으로 여겨지거니와, 종군 시인들의 전쟁시 역시 대부분 애국적 인물을 찬양하거나 비애국적 인물을 비판함으로써 애국심을 강조한다든지, 승리를 위해 전의를 고취하거나 적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한다든지 등의 내용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육군 종군 시인들의 작품 중에서 애국적 인물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유지환의 「아름다운 군병」, 「소박(素朴)」, 「역새꽃」, 「탐색대」, 「전진」, 「비겁」, 이덕진의 「잠복조 앞으로」, 이호우의 「기발」, 조영암의 「출정사」, 「진격의 노래 (1)」, 「해병대 찬가」, 「비상」 등이다.

비록 戎衣[용의]는 낡고/풍모는 풍찬에 야위었으되/오히려 원수에게도 자랑 높은 군병이여 (유지환, 「아름다운 군병」)

사랑도 하나 없이/싸움터로 달린다/나라와 겨레 우에/몸이 슬어도 (조영암, 「출정사」)

이처럼 애국적 인물을 찬양하는 작품들은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투에 나서는 군인들의 용감성과 희생정신을 찬양함으로써 애국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애국심 고취는 전쟁이라는 국난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애국적 인간들에 대한 비판으로도 나타난다.

이 쓰레기 같은 윤락의 거리에서/내일도 없고 나라도 모르는/오직 희망이 같은 이기[利己]에 썩는 거리에서/먹고 입음이 이미 욱된 삶일진대/내 헐벗음을 수치함이 아니라 (유치환, 「어디로 가랴」)

이렇게 더러운 나라가 또 어디 있겠느냐고/「중략」/백성들마저 소매치기 협잡군 거지 아니면 탐관오리요 모릿군으로 (유치환, 「나의 모국」)

중군 시인들은 또 조국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군인들에 대한 애도를 통해서 애국심을 고취하기도 하였다. 유치환의 「전우에게」, 「전사한 한 UN 병사에게」, 「화란기에 영원히 영광 있으라」, 이덕진의 「해탈」, 조영암의 「조충혼(弔忠魂)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일반 애도시와 달리 시적 대상들이 조국을 위해 숨졌다든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에 더욱 비장함과 숭고함을 느끼게 한다.

죽음은 하나의 자연의 귀결/그러나 나의 죽음은 내 조국의 지주되리니 (이덕진, 「해탈」)

승리를 위해 전의를 고취하거나 적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으로는 구상의 「불덩이를 안고」, 김팔봉의 「동부전선」, 양명문의 「총진군」, 유치환의 「원수의 피로 씻는 지역」, 「반격」, 「노래」, 이덕진의 「총」, 「레이크씨세스」의 방송, 장만영의 「다시 좋은 계절이 왔다」, 이호우의 「지옥도 오히려」, 조영암의 「열도(熱禱)」, 「진격의 노래 (2)」, 「시산을 넘고 혈해를 건너」, 「조국전선」, 「유언」, 「망명의 길」, 「반격」, 「북한소묘」, 「북별사」, 「학살시(屍)」, 「북한에」, 「소년적시(敵屍)」, 「구름과 산령과 동백꽃」, 「피의 능선」, 「어떻게디 살라야」 등이 있다.

강물처럼 터지는/분노를 담아서/하늘까지 치미는/미움의 줄을 당겨서//우리 모두 다/원수를 겨눠라(구상, 「불덩이를 안고」)

이처럼 이 작품들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전쟁의 정당성을 인식케 하면서 일선 지원을 독려하기도 하고 용감히 싸울 것을 선전 선동하고 있다. 전쟁 당시 김종문은 현대전에 있어서 선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은 무력을 비롯하여 정치력, 경제력 및 선전력 등의 4대요소로서 전쟁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현대전의 시대이다. 그래서 선전전은 무력전에 대한 보조수단이 아니고 문화적 기술로서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의 독립된 전투수단이 된다. 더욱이 현대전에 있어서는 전민족의 정신적

단결 여하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유력한 요소이다. 따라서 문화인들은 현대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군 시인들의 전쟁독려시가 이처럼 선전 선동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러한 논리에 힘입은 바 컸을 것으로 생각되거니와, 이 중 많은 작품들은 공산주의를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

차마 겨레기로 피를 이은 겨레기로/깨닫고 돌아옴을 기다려 믿었도다/너 무슨 죄고(罪苦)의 씨기로 끝내 배반하느뇨(이호우, 「지옥도 오히려」)

역쇠가 지주 마누랄 겁탈하고/마당쇠가 생판 날불한당 되어가고//어질디 어진 허침지도 민반(民叛)으로 몰려/이웃 고을로 쫓기어 가고//개새끼 한 마리 얼씬대지 않는 동리마다//쓰파린 초상이랑 일성초상(日成肖像)이랑 험긋게 웃고 섰더니라(조영암, 「북한소묘」)

이상의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쟁독려시들은 한국전쟁이 같은 민족간의 전쟁이라는 점보다는 민주주의 세력 대 공산주의 세력의 싸움, 곧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전쟁 당시 국방부 정훈국장이었던 이선근은 '문화인이란 이념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무력전에 승리해 가고 있는 것을 단순히 무력의 승리가 아니라 이념의 승리로서, 전 인류의 단결된 민주주의 철학의 승리라는 것을 구명하고 증명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마도 종군 시인들의 전쟁독려시에 나타난 도식적 선악관은 이러한 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편, 전쟁독려시와는 달리 전쟁비판시는 전장의 상황 및 전쟁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거나 전쟁의 비인간성을 암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구상의 「폐허에서」, 양명문의 「칠월의 노래」, 「낮선 마을에서」, 「메알이」, 유지환의 「영아에게」, 「결의」, 「들꽃과 같이」, 「삶과 죽음」, 「홍모란」, 「수난」, 「문노니」, 「일구오0년의 X마스에 부치다」, 「유맹」(流氓), 「기(旗)의 의미」, 「갈대」, 「호천(好天)」, 「금강」, 「감상저격」(感傷狙擊), 「소계」(小憩), 「최전선」, 성기원의 「모가지」, 이덕진의 「피의 능선」, 이봉래의 「결별」, 조영암의 「무명전사의 무덤」, 「폐허(廢墟)우에서」, 「비원」(悲願) 등이 있다.

① 수 없는 젊은 목숨들이 아까움 없이/어제도 죽어 가고/오늘도 죽어 가고/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쳐 모를/그 오직 하나밖에 아닌 목숨의 살고 죽음이/여기에선 차라리/일상

찬 가계의 거래보다 수월히 치러지노니 (유치환, 「영아에게」)

② 그 어느 세상부터/생긴대로 살아 온 이 서러운 삶들 위에//어제는 인공기 오늘은 태극기
/관원할 바 없는 기폭이 나부껴 있다 (유치환, 「기(旗)의 의미」)

③ 몇 달만 있으면 다시 밀어 치운다고/큰 소릴 치며 보파릴 싸지고/남으로 남쪽으로 달아
나온/아들이 떠나간 곳/이... 남쪽 하늘만 바라보실테지/ <중략> / 내 고향 갈 길을 누가
막는가! (양명문의 「7월의 노래」)

④ 집단 피난민이었다. 세 살 난 남아와 여아/나는 발을 구른다. 대대 끝을 달리는//GMC와
반방향으로 있는 AMBULANCE에는 발이 군화와 동결된 포로가 실렸다고 한다. 포성이
격화되면 혼돈한 (전봉건, 「ONE WAY」)

⑤ 하꼬방(板子幕) 유리막지에 애새끼들/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내려다
보던 해빨이 눈부시어 돌아선다//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어느 접어든 골목에
서 걸음을 멈춰라//재떨이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구상의 「폐허에서」)

한국전쟁은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확대되어 세계대전적 규모의 인적, 물적 피해를 남겨주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거나(최장집 352), 위의 전쟁비판시들은 이를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은 인간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전쟁의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②는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하게 살아가던 대다수의 민중들이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한 동족간의 전쟁으로 수난 당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또한 전쟁은 ③,④처럼 인명 살상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을 헤어지게 만들고, ⑤처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피난살이의 고통을 겪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전쟁비판시는 대부분 전쟁 경험의 시적 형상화를 통해 전쟁의 비인간적 성격을 비판하고 있는 바, 이러한 성과는 시인 자신의 전쟁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한다.

3. 전쟁소설 창작과 그 특성

육군 중군작가들이 발표한 전쟁소설 중에는 국군의 모습을 형상화 한 작품이 많다. 한국 현대소설에 있어서 국군이 주요 인물로 형상화 된 것은 이때부터이므로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먼저 육군, 해군

(해병대 포함), 공군의 형상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군을 형상화 한 작품 중 육군 관련 작품은 김송의 『사진』, 『두 개의 심정』, 『불사신』, 『상흔』, 『고향을 잃은 아이들』, 박영준의 『용사』, 『암야』, 『김장군』, 『의리와 애정』, 『위문편지』, 『로병과 소년병』, 『가을저녁』, 『애정의 계곡』(장편), 『열풍』(장편), 장덕조의 『짧은 힘』, 『선물』, 정비석의 『간호장교』, 『서복풍』, 『남아출생』, 『색지풍경』, 『애정무한』(장편), 최독견의 『애정무한성』(장편), 최태웅의 『구각(舊殼)을 떨치고』, 『무지개』, 『전후파(派)』(장편) 등이며, 해군 관련 작품은 김송의 『달과 전쟁』, 『폭풍』, 『풍랑』, 『탁류 속에서』(장편), 『영원히 사는 것』(장편), 최태웅의 『찬미소리 들으며』, 『정처』(定處) 등이다.(방기환 1953, 최인욱 1952)

육군 관련 작품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는데, 이는 3군 중에서 육군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겠으나, 종군체험의 가능성 면에서도 육군의 경우가 가장 용이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해군의 경우에는 종군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배를 타고 다녀야 한다는 점이 큰 문제였던 것 같다. 종군 기간 동안 가족들의 생계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공군의 경우에는 그 문제점이 더욱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공군 종군작가들의 종군 활동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었다. 공군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가 비행기를 직접 타고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었지만, 종군작가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종군작가들은 비행단을 찾아다니면서 조종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고작이었다. 공군 체험에 관한 이들의 소설이 양과 질에 있어서 빈약한 것은 체험이 중요시되는 소설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종군작가들의 전쟁소설에서 또 다른 특기 사항은 육군종군작가단 소속 작가들이 전쟁독려 소설을 가장 많이 발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종군작가단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3군 중 육군의 지원이 가장 좋았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거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해군종군작가단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공군의 경우 전쟁독려 소설이 많지 않았던 것은 조직의 분위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군종군문인단은 ‘창공구락부’라고도 불리웠는데, 이러한 이름의 성격에서도 드러나듯이 친목적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며, 군에 의한 구속력은 육군에 비해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육군 종군작가들이 발표한 전쟁소설 역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반공사상 및 애국심을 고취하거나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전의를 고취

하는 전쟁 독려소설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목적의식보다는 전쟁기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치중하거나 전쟁의 비인간성을 비판하고 있는 전쟁비판 소설이다.

첫째 유형의 작품 중 장편으로는 김송의 『탁류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 박영준의 『애정의 계곡』, 『열풍』, 정비석의 『애정무한』, 『여성전선』, 최독견의 『애정무한성』, 최태웅의 『전후파』 등이 있으며, 단편으로는 김송의 『서울의 비극』, 『폭풍』, 『고향을 잃은 아이들』, 『풍랑』, 『불사신』, 김이석의 『악수』, 박영준의 『변노파』, 『용사』, 『암야』, 『지리산근처』, 『삼형제』, 『빨치산』, 『김장군』, 『의리와 애정』, 『가을저녁』, 『전주곡』, 『밥이야기』, 손소희의 『결심』, 안수길의 『고향바다』, 『갱생기』, 장덕조의 『젊은 힘』, 『어머니』, 『선물』, 정비석의 『간호장교』, 『서북풍』, 『남이출생』, 최독견의 『양심』, 최태웅의 『무지개』, 『구각(舊殼)을 떨치고』, 『찬미소리 들으며』, 『삼인』 등이 있다.

이상의 작품들은 주로 공산주의 이론의 허구성 및 공산주의 사회의 모순 폭로, 북한 김일성 및 소련의 스탈린에 대한 비판, 공산주의자 및 부역자들의 부정적인 모습 부각, 전의 고취, 애국적 인물의 형상화, 용감한 국군상의 형상화, 일선 지원 독려, 후방 사회의 타락상 비판, 이기적 인간 비판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전쟁을 독려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작품 표면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계몽적 성격이 강한 작품에 해당한다고 하겠는데, 이는 중군작가로서의 임무 혹은 작가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작의적이고도 관념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은 이러한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끝나자 이 같은 경향의 작품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 작품이 지니고 있는 목적의 한시성과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중에는 당대 사회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한국전쟁기 현실의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보여주는 작품도 상당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당시 육군중군작가단 단장이었던 최독견의 『애정무한성』은 하나의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하여 이 작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작품은 총 192회 연재되었다.¹⁾ 전체 2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작품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주인공 한성희가 자신의 지난 삶을 회상하는 내용으로서 한성희가 태어난 해인 1917년 직후부터 아들 병철을 만나게 되는 1952년 5월 22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이야

1) 마지막 연재 횟수가 194회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2회 연재된 셈이다. 174회, 175회는 신문에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하 작품 인용시 연재 횟수만 밝히고자 한다.

기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후부터 한성희가 고아원을 인수하게 되는 5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부산에서 일어난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 당대의 시대상을 보여준다.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죽은 성희 아버지 한신호, 무식하지만 삶의 경험에 의지하며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유모, 성희를 사모하는 정소령, 회사 중역인 정준모, 미군 중령 스미스, 소설가 황성야, 조선인들은 무조건 무시하고 보는 외국인 선교사들, 일지 사변으로 인한 영한의 유학 금지, 학도병 지원을 유세하고 다니는 친일 문인들, ‘가네마루상’이라고 창씨 개명하고 살다가 해방이 되자 일장기를 반쪽만 검은 칠을 하여 태극기로 바꾸어 다는 “시나리오도 쓰고 영화 감독으로 자처하며 일본 여자를 아내로 하여 살고 있는 중년 신사”(연재 78회) 김춘강, 일제 말기 중국군을 몰아내는 일본군을 따라 다니며 돈벌이를 하면서, 중국에서 ‘민대인’이라는 호칭을 받으며 살다가 일본이 패망하자 귀국한 민준호, 월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길 안내를 하는 안내자들, 국군의 평양 점령에 대한 소감을 묻자 후환이 두려워 말을 제대로 못하는 북한 주민들, 육혈포로 공산당 간부를 쏘아 죽이고 월남한 복순의 남편, 양혜라로 대표되는 전쟁기 양부인들, ‘괴뢰군들에게 몸을 더럽힌 채’ 쫓겨난 옥순과 경찰이지만 몸이 아파서 도강을 하지 않았다가 “괴뢰군놈들에게 총살”(연재 162회)당한 옥순의 남편, 남북 당한 신은경, 고아원 원장 함재순과 그의 남편 변형찬 목사 등의 모습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이 보다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한성희라는 불운한 여성의 삶이다. 한성희는 “평양에서도 손꼽는 부자 한장로의 외아들로서 십여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삼십이 훨씬 지나서 고국에 돌아온”(연재 3회) 한신호와 미인 투표에서 일등으로 당선한 기생 김백화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성희가 두 뉘 되는 해에 그의 어머니는 유행 독감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기미년 3·1운동 때 시위 행렬 선두에서 총을 맞아 쓰러진다. 병원에 입원한 한신호는 10년 선배이자 종씨인 한경후 박사에게 성희와 유모를 부탁한 후 역시 세상을 떠나고 만다. 성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한박사 내외를 친부모로만 알고 성장하게 되는데, 여고 시절 몽금포 해수욕장에서 만난 고영한이라는 고학생을 계기로 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된다. 성희의 집에 기거하게 된 영한과 성희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육체적 관계까지 맺은 후 장차 결혼을 약속하지만, 한박사의 환갑날 성희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다. 한박사 부인 윤씨는 영한을 친딸인 성순과 결혼시켜야 한다고 한박사에게 다짐을 놓고 있고, 제안을 받은

영한은 이를 즉각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배신감을 느끼게 된 성희는 유모와 함께 집을 뛰쳐나온 후 서울을 떠나 평양으로 간다. 임신을 하게 되자, 성희는 유모의 충고에 따라 다시 서울에 와서 아이를 낳은 후 성순에게 그 아이를 주고 평양으로 돌아온다. 이곳에서 성희는 한박사에게서 받은 돈으로 「순정 다방」을 차린다. “영한이를 미워하는 적개심을 모든 다른 사내에게로 그 화살을 보내고 싶은”(연재 57회) 마음에서이다. 성희는 자신의 관심을 끄는 남성들을 호텔에 초대하여 연애 편지를 공개하고 망신을 주기도 하면서, “마음을 빼앗기는 사랑의 불장난을 다시 않겠다는 마음의 투쟁”(연재 73회)을 한다. 이렇게 지내던 중 해방이 되고 소련군의 행패는 심하여 간다. 어느 날 깊은 밤중 성희의 집에 소련 장교가 들어와 성희를 강간하려고 한다. 유모는 다듬이 방망이로 그의 머리를 쳐 죽게 만든다. 유모가 감옥에 갇히게 되자, 성희는 유모를 구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봉건적 잔재 사상인 정조 관념부터 청산해야”(연재 86회) 할 것을 강조하는 여맹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나 소련군 장교가 성희의 몸을 탐내자 그녀는 월남을 결심한다. 천신만고 끝에 월남에 성공한 그녀는 서울에서 우연히 소설가 황성야를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신은경이라는 다방 마담을 소개받는다. 신은경은 성희에게 의형제를 맺자고 하면서, 자신이 경영하던 「해방촌 다방」을 성희에게 준다. 덕분에 의지할 곳조차 없던 성희는 다시 생활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는데, 이때 6·25가 발발한다. 성희는 6월 27일 황성야와 함께 부산으로 피난하여 황의 소개로 군속이 되어 정훈국에 근무한다. 그녀는 이후 신은경이 납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평양에서는 유모를 만나게 된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철수할 즈음해서 유모가 죽자 성희는 슬픔에 젖는다. 서울로 돌아온 성희는 1951년 1월 3일 다시 피난길에 오른다. 영등포역에서 우연히 정준모를 만나 그에게 맡겨 놓은 패물을 찾게 되고 그 돈으로 다시 부산에다 「은성 다방」을 차린다. 다방 덕택으로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되자 성희는 다시 금고독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정소령, 정준모, 미군 중령 스미스 등이 구혼을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정하지 못한다. 이때 영남대학교장이 된 고영한이 찾아와 성희의 마음은 흔들리게 된다. 그녀는 병철을 데려다 자신이 키우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를 찾으러 온 병철의 모습에서 더 이상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더 이상 고영한을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병철과 헤어진다. 슬픔에 눈물을 흘리던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스미스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지만, 우연히 만난 양혜란과 함께 고아원을 방문하고서는 ‘불쌍한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 고아원장이 된다는 것이 이 작품의 결말이다.

다소 길다는 느낌이 없지 않지만 신문연재소설인데다 이제까지 국문학사에서 소개된 바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개하였다. 어쨌든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애정무한성』은 한 여인의 불행한 삶과 그녀가 고아원장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당대 현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곳곳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낸다. 해방군을 자처하며 못된 짓을 일삼는 소련군과 소련군을 무조건적으로 숭배하는 북한 공산당 간부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묘사하면서, “북한 괴뢰군이 무력으로 조국 대한민국에 대하여 반역적 침략을 개시한 것”(연재 107회), “공산 매국노들이 발호하던 북한 지역”(연재 117회), “펼딩 모퉁이에는 공산당에게 속아서 개죽음을 한 괴뢰군의 시체가 가마니 조각에 덮이어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연재 115회) 등과 같은 적개심에 가득찬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이 반공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소설임은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나거니와, 이는 육군중군작가단 단장이라는 그의 신분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독견은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싸우려는 「펜」은 그야말로 수류탄이며 야포며 화염방사기며 원자 수소의 신무기가 되어야 할 것”(최독견 1952)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또 휴전이 이루어지기 직전, “휴전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한 개의 전쟁이기 때문에 충분한 각오와 준비로써 임하여야 하며, 적이 강력하게 시도하고 있는 문화선전전의 항전만이라도 충분히 준비하고 강력히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선전전에 있어서의 문화인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선전전에 있어서의 문화의 임무는 매우 큰 것이다. 더욱이 필봉을 들고 문장을 엮거나 시 소설 등 작품을 구설로써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인사들의 임무는 그야말로 열전에 있어서의 일선장병에 못지 않은 책무를 느끼고 행동하여야 할 것이다. 그의 머리 속에는 조국의 흥망과 민족의 성쇠가 언제나 떠나지 않음으로써 총을 들고 고지로 돌격하는 일선 용사와 같은 투지가 설단에서도 필봉에서도 융출폭발하여야 할 것이다.(최상덕 75)

요컨대 최독견은 문학작품을 선전전의 무기로서 사용할 것을 주장한 셈인데, 『애정무한성』은 이러한 주장을 작품으로 실천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원조물자를 떼어 먹고 사회의 동정을 구하여 사복을 채우는 소위 고아원장이들”(연재 171회)도 있는 타락한 현실에서 참된 고아원장의 길을 택하는 주인공

성희의 모습은 애국심 및 반공사상을 고취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와 관련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편, 둘째 유형의 전쟁비판소설로는 전장의 모습을 그린 김송의 『달과 전쟁』, 피난지 현실을 그린 김송의 『사진』, 『두개의 심정』, 『라체상』, 김영수의 『퇴폐의 장』, 『여성회의』(장편), 김이석의 『분별』, 손소희의 『그날에 있는 일』, 『향연』, 『쥐』, 『거리』, 최태웅의 『정치』, 『대가·외삼제』, 『자매』 등이 있다.

이 작품들은 어떤 목적의식을 고취하기보다는 한국전쟁기 현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들은 전쟁의 비인간성 비판, 정부와 위정자들의 부정과 무능함에 대한 비판, 풍자를 통한 세태 비판, 이데올로기보다는 휴머니즘 강조 등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휴머니즘의 차원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이른바 ‘반전문학’의 초기적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그 예로서 김송의 작품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김송의 『달과 전쟁』은 소설이라기보다는 ‘르포르타주’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서울 수복 하루 전날의 전투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세상 모든 것이 죽음으로 화하는 살벌한 하늘 빛’, ‘전율과 사의 공포만이 쌓여 있는 것’, ‘총탄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짙자, ‘피 묻은 군화’, 대포 소리, 총소리,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적’의 사체들, 거대한 폭음으로 인해 기절하였다가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는 ‘나’의 모습, 추석을 하루 앞둔 날 저녁 달의 모습, 별정계 타고르고 있는 서울의 하늘, 내일은 입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 설레임을 느끼는 ‘나’의 모습 등이 이 작품에 그려져 있다.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묘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종군 체험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²⁾ 『사진』은 전쟁으로 인한 군인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 경섭이와 영옥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1951년 정월 눈 내리는 날 헤어지게 된다. 경섭이는 이웃청년들과 함께 군사 훈련을 받으러 가고, 영옥은 피난민 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온 것이다. 헤어진 지 석달이 되는 어느 날, 경섭은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고 OO전선으로 떠나는 도중 부산에서 30분간 자유시간을 얻게 된다. 영옥이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부산 거리를 배회하던 경섭은 우연히 영옥을 거리에서 만난다. 반갑기는 하였으나 경섭은 언제 죽을 지 모르는 목숨인자라 기약없이 헤어지고 만다. 달포 후 영옥은 편지 봉투를 받

2) 이 사실은 종군기 「군과 함께」(『문예』 전시판 1호, 통권 12호, 1950, 12)와 회상기 「종군작가, 기자, 카메라맨이 말하는 해병전선」(『해군』 94호, 1964, 10) 등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난다.

게 되는데, 여기에는 경섭의 중형 사진과 전선일기가 적혀 있는 수첩, 그리고 영옥의 사진이 들어 있다. 영옥은 이것이 경섭의 전사 소식을 알리는 부고라는 것을 깨닫고 슬퍼한다는 것이 이 작품의 결말이다. 전쟁으로 인한 연인들의 이별과 국군의 죽음이라는 모티프를 통해 전쟁의 비극성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두개의 심정』은 전쟁기 주된 소재 중의 하나였던 상이군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지적 작가 서술로 이루어져 있는 이 작품은 두 사람의 심정 즉, 어머니와 아들 동수의 심정을 그리고 있다. 어머니는 서른 살 때 남편을 잃고 온갖 설움을 받으면서 ‘금이야 옥이야’ 하고 아들 동수를 키웠다. 6·25가 발발하자 아들을 지하실에 숨기기도 하고 인민군에게 붙잡혀 가는 아들을 이십 리나 쫓아가서 구해내기도 한다. 중공군이 밀려오고 ‘제이국민병’ 소집장을 받게 되자 그녀는 할 수 없이 동수를 군에 내보낸다. 대구로 피난 온 그녀는 어느 날 이웃에 살고 있던 박서방을 만나 그 동안 알 수 없었던 동수의 소식을 듣게 된다. 부산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있다는 말에 떡을 해 가지고 병원에 찾아가던 중, 그녀는 버스 안에서 은단을 팔고 다니는 상이군인을 보고서 그에 대한 동정과 함께 아들 걱정을 한다. 또 극장 앞에 모여 있는 상이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저리를 치기도 한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아들 동수를 보고 매우 기뻐한다. 그런데 동수는 양팔이 모두 잘린 자신의 몸을 어머니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보료를 몸에 두르고 나타난 것이다. 결국 동수는 병신이 된 자신의 몸에 절망한 나머지 어머니가 물을 뜨러간 사이에 자살하고 만다. 상이군인의 자살이라는 모티프를 통해 전쟁기 현실의 비극성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작품이라고 하겠다.

김송의 『라체상』은 전쟁으로 인해 불행하게 된 한 여인의 삶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 ‘그 여자’는 6·25 동란으로 화가인 남편이 남북 당하자 네 살 난 아들과 함께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그녀는 “지니고 온 물건을 꼭감꼬치 빼여먹드시 한개식 한개식”(김송 1953, 116) 팔아먹다가 양담배 장사를 시작한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어 규모를 크게 확장하였다. 그러나 “양키 물품은 한국에 들어온 유엔군의 탄환이나 무기들과 같아서 민간인의 사사매매는 위법”(117)이라, 모든 물건을 몰수당한다. 맥이 풀린 그녀는 거의 반 달이나 앓다가 새로운 장사를 시작한다. 그것은 딸라(군표) 장사였다. 처음에는 오백만 원으로 시작한 것이 삼천만 원에까지 이를 정도로 수입이 좋았다. 그러나 극히 비밀리에 진행된 ‘딸라 개혁’이 돌발하여 종래의 낡은 딸라는 새것의 등장과 함께 무효가 되고 만다. 그녀의 즐기찬 생명의 의욕도 따라서 위축되고 만다. 할 수 없이 그녀는 돈을 빌어서 살아간다. 그러나 “고리돈을 써가면서 사는 것은

돈꾸레미로 목아지를 졸라매는 것과 같이 괴로운 노릇”(120)이기에, 그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중년부인(그녀자는 생활의 선수라고 녀여졌다)의 말과 같이 모자 두 목숨이 한꺼번에 꺼져버리지 못하는 이상,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한 달 혹은 두 달 뒤에 어떻게 처참한 사태가 벌어질런지 예측할 수 없는 전쟁판에 생활의 청탁을 논할게 무엇이냐. 하고 역경과 정면으로 막 부닥칠 심사도 복바쳤다. (120)

그녀는 잘 먹지 못하는 술을 마시고 이웃집 중년 부인과 같이 방문을 열어 놓고 매춘을 시작한다. 설날 전날 밤 그녀는 비참해진 자신의 육체와 옛날 자신의 나체를 그린 남편의 그림을 비교해보다가 애지중지하게 보관해 오던 그 나체화를 칼로 찢어버린다. 그리고 나체화는 장난꾸러기 아이들의 목걸이가 된다는 것이 이 작품의 결말이다. 여성들이 전시 하 생활고로 인해 매춘업을 하게 된다는 내용의 작품은 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발표된 바 있으나, 이 작품은 양담배 혹은 달러를 둘러싼 문제 등과 같은 전쟁기 현실의 모습을 독자로 하여금 엿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군 중군작가들의 전쟁소설은 대부분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 및 애국심 고취를 위한 목적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국전쟁기 현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 전쟁의 성격에 대한 문제 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이 적은 것은 그만큼 한국전쟁기의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을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인정하던 “이제는 중간파도 없고 회색분자도 있을 수 없다.”(장덕조 1951, 77)라는 말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따라서 전쟁 당시의 작품에서 한국전쟁의 원인이라든가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찾을 수 없다는 비판은 현실을 무시한 당위론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전쟁기에 발표된 중군작가들의 전쟁소설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거니와, 한국전쟁에 대한 증언적 의의와 함께 한국문학사에 있어서 새로운 분야의 작품 창작, 즉 군 관련 소설 및 전쟁소설의 원형으로서의 의의는 특히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전쟁기에 발표된 육군중군작가단의 작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른 중군작가단에 비해 자료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그 특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육군 중군작가들은 중군 활동을 하면서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문학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전쟁소설과 전쟁시에 대해서만 논의하였다. 이들의 전쟁문학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애국심 및 전의 고취를 위해 전쟁을 독려하고 있는 전쟁독려 문학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보여주고 있는 전쟁비판 문학이다. 전자의 작품들이 선전 선동의 목적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후자의 작품들은 전쟁 경험의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전쟁의 비인간적 성격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중군작가들의 작품을 단지 '반공문학'으로만 규정하고 비판하는 기존의 선입견은 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중군 문인들 대부분이 전쟁독려 문학 작품만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전쟁비판 문학 작품도 함께 발표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전쟁독려 문학작품을 발표한 작가 중에는 단지 생활의 필요상 중군작가단의 요구에 따라 작품을 창작한 경우도 없지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많은 작가들은 전쟁의 비인간성을 깨닫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애국심 혹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위해 문학을 도구화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타 중군작가에 대한 연구 및 전쟁 이후의 작품에 대한 검토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 구상. 『시와 삶의 노트』. 서울: 자유문학사, 1988.
 김송. 『라체상』. 『文藝』 16호. 1953, 6.
 김종문. 『전쟁과 선전』. 『전시문학독본』. 서울: 계몽사, 1951.

- 방기환. 『골육』. 『코메트』 4호. 1953, 5.
 신영덕. 『한국전쟁기 중군작가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1998.
 이선근. 「이념의 승리」. 『문예』 (1950, 12).
 장덕조. 「내가 본 공산주의」. 국제보도연맹 편. 『赤禍三朔九人集』. 1951.
 최독견. 「창간사」. 『전선문학』 창간호 (1952, 4).
 최상덕. 「선전전과 문화인의 임무」. 『신천지』 8.3 (1953, 7).
 최인옥. 「정찰삼화」. 『문예』 13호. 1952, 1.
 최장집. 「한국전쟁에 대한 하나의 이해」. 『한국전쟁 연구』. 서울: 태암, 1990.
 한완상, 박명규. 「한국사회연구와 한국전쟁연구」.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서울: 풀빛, 1992.

부록-육군중군작가단 작품목록

I. 시

구상

- 「폐허에서」, 『코메트』 3, 1953.2
 「봄 바다 삼장」, 「청룡」, 해병사령부 정훈감실, 1953.8
 「기도」, 김용호, 이설주 편, 『1953년 연간 시집』, 문성당, 1954.1
 「불덩이를 안고」, 이윤수 편, 『전선시첩』 제1집, 학문사, 1984.6
 「피 흐르는 명절에」, 『전선시첩』 제3집, 학문사, 1984.6
 시집 『구상』, 청구출판사, 1951.5

김팔봉

- 「동부전선」, 『신천지』 8권1호, 1953.4
 「오월의 표정」, 『학원』, 1953.5

성기원

- 「모가지 - 전사한 아우 H의 영령 앞에」, 『전선시첩』 제3집, 학문사, 1984.6

양명문

- 「찬가 -수도사단에 드리는」, 『전선문학』 창간호, 1952.4
 「어머니」, 「명태」, 「단오」, 이한직 편, 『한국시집』, 대양출판사, 1952.12
 「메알이」, 『전선문학』 4호, 1953.4
 「선」, 김용호, 이설주 편, 『1953년 연간 시집』, 문성당, 1954.1
 「총진군 (군독시)」, 『국방』 25호, 1953.7
 「노도」, 「칠월의 노래」, 「낮선 마을에서」, 「청룡」, 해병사령부 정훈감실, 1953.8
 「아들」, 『전선시첩』 제3집, 학문사, 1984.6

유치환

- 「보병과 더부러 - 동북전선종군시초(詩抄)」, 『문예』, 1950.12
 「어업제일장」, 『자유세계』, 1952.5
 「동해여 - 동해가도를 가며」, 『군향』 제1호, 1952.9
 「고독」, 『전선문학』 2호, 1952.12
 「바람에게」, 「개현안시비」, 「낮석점」, 이한직 편, 『한국시집』, 대양출판사, 1952.12
 「석굴암대불」, 「자하문」, 『신천지』 8권1호, 1953.4
 「잠 깨는 봄」, 『학원』, 1953.4
 「저녁놀」, 김용호, 이설주 편, 『1953년 연간 시집』, 문성당, 1954.1
 「밤 진해만두에 서서」, 『자유세계』, 1953.6
 「행복」, 『문예』, 1953.6
 「기의(旗) 의미」, 「소박(素朴)」, 「결의」, 「청룡」, 해병사령부 정훈감실, 1953.8
 시집 『보병과 더부러』, 문예사, 1951

이덕진

- 「피의 룡선」, 『전선문학』 창간호, 1952.4
 「별과 나와」, 「체감」, 「충」, 이한직 편, 『한국시집』, 대양출판사, 1952.12
 「나를 찾아야겠다」, 김용호, 이설주 편, 『1953년 연간 시집』, 문성당, 1954.1
 「초」, 『코메트』 2, 1953.1
 「기원」, 『전선문학』 4호, 1953.4
 「해탈 - 어떤 사병의 죽음」, 「잠복조 앞으로」, 「레이크씨세스」의 방송, 『청룡』, 해병사령부 정훈감실, 1953.8

「해탈 - 무명병사의 죽음」, 전선시첩 제3집, 학문사, 1984.6

이호우

「기발」, 『전선문학』 창간호, 1952.4

「임이여 나로 가자오」, 김용호, 이설주 편, 『1953년 연간 시집』, 문성당, 1954.1

「지옥도 오히려」, 이윤수 편, 『전선시첩』 제1집, 1984.5

장만영

「U · N묘지」, 『문예』, 1950.12

「척후병을 보내며」, 『전선문학』 창간호, 1952.4

「글의 행렬」, 『자유세계』, 1952.10

「밤의 서정」, 「산개나리 꽃」, 「단장」, 이한직 편, 『한국시집』, 대양출판사, 1952.12

「석양소묘」, 『전선문학』 3호, 1953.2

「다시 좋은 계절이 왔다」, 『전선문학』 5호, 1953.5

전봉건

「ONE WAY - 이 길로는 가기만 합니다.」, 『코메트』 2, 1953.1

「철조망」, 『자유세계』, 1953.4

「0157584」, 『국방』 23호, 1953.4

「ONEWAY - 이 길로는 가기만 합니다 -」, 「BISCUITS」, 「작난」, 「청룡」, 해병사령부 정훈감실, 1953.8

조영암

「허 - 제5장」, 「허 - 제13장」, 「허 - 제27장」, 이한직 편, 『한국시집』, 대양출판사, 1952.12

「서백리아(西伯利亞)에의 길 - 추모 고당선생」, 『자유세계』, 1952.1

「진격의 노래」, 『군항』 제2호, 1952.11

「시산을 넘고 혈해를 건너」, 『군항』 제4호, 1953.3

「구름과 산령과 동백꽃 - 젊은 해병에게」, 『해군』, 1953.5

「구름과 산령과 동백꽃」, 「피의 룡선」, 「어떻게 디 살라야 - 북한의 왕에게 주는

시, 『청룡』, 해병사령부 정훈감실, 1953.8
시집 『屍山을 넘고 血海를 건너』, 정음사, 1951.3

II. 소설

김송

『달과 전쟁』, 『전시문학독본』, 계몽사, 1951
『서울의 비극』, 『전쟁과 소설』, 계몽사, 1951
『상흔』, 대한금융조합연합회 편, 『농민소설선집』, 1952
『사진』, 『연합신문』, 1952.5.17-19
『두개의 심정』, 『문예』 14, 1952.5
『폭풍』, 『해병과 상륙』, 계문사, 1953.3
『풍랑』, 『해군 해병 통합지』 통합 제4호, 1953.4
『불사신』, 『전선문학』 5, 1953.5
『공백』, 『해군』, 1953.5 (공트)
『고향을 잃은 아이들』, 『학원』 2권 6호, 1953.6
『나체상』, 『문예』 16, 1953.6
『탁류 속에서』, 신조사, 1950 (장편)
『영원히 사는 것』, 백영사, 1952 (장편)
『탁류』, 일문사, 1953 (장편)

김영수

『풍조』, 『영남일보』, 1951(미확인)
『여성회의』, 『연합신문』, 1952.1.15-2.17
『퇴폐의 장』, 『자유세계』 4, 1952.5

김이석

『악수』, 『전선문학』 1, 1952.4
『분별』, 『전선문학』 2, 1952.12

박영준

- 『용사』, 『전쟁과 소설-현역작가 5인집』, 계몽사, 1951
- 『어둠을 헤치고』, 대한금융연합회 편, 『농민소설선집』, 1952
- 『암야』, 『전선문학』 1, 1952.4
- 『봄하늘』, 『연합신문』, 1952.4.27-30
- 『빨치산』, 『신천지』 51, 1952.5
- 『변노파』, 『문예』 14, 1952.5
- 『가을 저녁』, 『전선문학』 2, 1952.12
- 『밥 이야기』, 『학원』 2권 3호, 1953.3
- 『김장군』, 『전선문학』 4, 1953.4
- 『삼형제』, 『협동』 39, 1953.4
- 『그늘진 꽃밭』, 신한문화사, 1953 (단편집)
- 『애정의 계곡』,三省社, 1953 (장편)
- 『열풍』, 『경향신문』, 1953.1-6 (장편)

손소희

- 『결심』, 『적화삼삭구인집』, 국제보도연맹, 1951
- 『그날에 있는 일』, 『협동』 32, 1951.11 (『전선문학』 2, 1952.12 재수록)
- 『향연』, 『신천지』 전시판 2호 7권, 1951.12
- 『쥐』, 『문예』 13, 1952.1
- 『반기』, 『협동』, 34, 1952.4
- 『제모와 위신과』, 『연합신문』, 1953.1.24-28
- 『거리』, 『전선문학』 5, 1953.5
- 『닿아진 나사』, 『문예』 17, 1953.6

장덕조

- 『어머니』, 『전시문학독본』, 계몽사, 1951
- 『젊은 힘』, 『전쟁과 소설』, 계몽사, 1951
- 『매춘부』, 『코메트』 2, 1953.1
- 『선물』, 『전선문학』 4, 1953.4
- 『소년과 왕의(王依)』, 『학원』 2권 4호, 1953.4

『훈풍』, 영웅출판사, 1951(미확인)

『십자로』, 문성당, 1953(장편)

정비석

『훈풍』, 『신조』 2, 1951.7(미확인)

『호색가의 고백』, 『연합신문』, 1952.5

『간호장교』, 『전선문학』 2, 1952.12

『남아출생』, 『전선문학』 4, 1953.4

『애욕』, 『코메트』 4, 1953.4

『애정무한』, 창조사, 1951(장편)

『녀성전선』, 한국출판사, 1952(장편)

『색지풍경』, 한국출판사, 1952(단편집)

『서복풍』, 보문출판사, 1953(단편집)

최득견

『양심』, 『신천지』 51, 7권 3호, 1952.5

『애정무한성』, 『서울신문』, 1952.7.16-1953.2.24(장편)

최태응

『구각을 떨치고』, 『전쟁과 소설』, 계몽사, 1951

『전후파』, 『평화신문』, 1951.11-52.4

『1952년의 표정』, 『자유세계』 3, 1952.4(미확인)

『대가.외삼제』, 『문예』 14, 1952.5

『무지개』, 『자유예술』 1, 1952.11

『찬미 소리 들으며』, 『해병과 상륙』, 계문사, 1953.3

『정치』, 『해군』, 1953.5

『삼인』, 『문화세계』 1, 1953.7

『자매』, 『신천지』 54, 1953.7

『전후파(派)』, 정음사, 1953(장편)

『다시 솟는 해』, 『국방』 23-?, 1953.4-?(장편)

[Abstract]

Authors Under the Service of the Army in the Korean War

Young-Duk Shin
(Korea Air Force Academy)

The literary products of Authors Under the Service of the Army during the Korean War have been neglected on the whole because of the perception that they were little more than war propaganda. The majority of the works (poetry, serial novels, and short stories) published by these authors in various Army publications such as *Junsunmunhak (Literature of the War Front)* and *Comet*, as well as in regular literary periodicals, supports this perception. Most of these works convey simplistic emotions and stereotypes that project untroubled patriotism and strongly antipathetic sentiments against to the Communist North. The appointed leader of this group, Dock-Kyun Choi regarded the pen as another form of weapon to be used against the Communists in the North, and did not shy away from describing in graphic details the atrocities committed by his enemies. But what truly deserves our attention is the fact that many of the same authors who wrote highly propagandistic works also wrote works that can only be described as antiwar. In these works are depicted as faithfully as possible the human sufferings of the war. These works resist and even question the very ideologies that have brought about the conflict, focusing instead on the dark side of the war—the horrifying deaths, the separation of families, and the displacement of people from their homes. How we are to interpret this ambivalence in many of these authors is a task that remains to be carried out. We must approach these works with more seriousness and begin by comparing them with similar products from authors under the service of the Navy and the Air Force during the Korean War.